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어요!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산생태탐방원 배롱나무 군에 퍼진 병충해와 방제 방법, 그리고 식물의 면역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 식물의 면역과 인간의 면역을 빗대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힐링요소)을 준다. 		
해설주제	병충해(주머니깍지벌레)와 식물(배롱나무)의 면역.	대상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연으로 산책 나온 탐방객 20명(여섯가족)
해설재료	사진자료, 배롱나무맨 모자, 살충제	소요시간	8'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나무 병충해	- "영화같네~?" 마치 아포칼립스 무비의 서막과도 같은 대한민국 작금의 상황과 그 못잖게 병충해 피해가 심각한 배롱나무 군(群)	1'	
주제별해설	나무의 면역	- 병충해에 대한 식물의 면역체계	6'	병충해 클로즈업 사진자료
	면역과 방충제의 관계	- 병충해에 도움이 되는 '방충제'에 대해		희석된 살충제가 든 분무기
	방충제와 백신	- 방충제 살포하기 → 인간의 백신과 빗대어 말하기		
정리	인류의 희망	- 인간의 면역과 백신 개발의 희망	1'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어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안녕하세요! 저는 배롱나무맨인데요, 오늘 OOO해설사가 놀러 가 버려서 대신 나왔어요.</p> <p>여러분에게 제 친구들을 보여주고 나무의 면역에 대해 말해주라 지 뭐예요. 뭐 의도는 좋은것같지만 저 불쌍하지 않나요?! 흑흑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나온김에 제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p> <p>최선을 다해볼테니 혹시 제가 부족하다더라도 저한테 뭐라하지마시구, 절 대신 보낸 OOO해설사를 혼내주세요! (병충해에 걸린 배롱나무 앞으로 간다)</p> <p>1번 배롱아 괜찮니? 여러분 잠깐 오셔서 이 친구 좀 보시겠어요? (배롱나무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원래 이렇게 건강했는데 까맣게 타버린 듯한 그을음 병에 걸렸네요. 병의 원인은... (하얀 벌레를 가리키며) 바로 이 주머니 깍지벌레 때문이랍니다. 이 녀석은 우리들의 수액을 빨아먹는 해충인데, 수액을 빨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을음을 손으로 닦아내며) 더 심각한 건 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는 점이에요.이런 거 처음 보시죠? 마치 불탄 뒤에 숯가루 같기도 한 이걸 자낭균이라 불리는 일종의 검은 곰팡이랍니다.</p> <p>그런데 깍지벌레가 어떻게 이 검은 곰팡이를 만들어내냐구요? 이게 깍지벌레의 응가를 엄청 좋아해서 깍지벌레 응가 위에 이 곰팡이가 자라나거든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랍니다.</p>

이 검은 곰팡이가 점점 커져서 우리 잎과 가지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게되면 광합성. 그러니까 햇빛밥을 잘 먹을수가 없게 돼요. 그럼 우린 꽃을 피우거나 뿌리를 뺏기 힘들어 시름시름 시들어가구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밥먹으려고 밥상에딱앉았는데 누가 곰팡이로 입을 막으면 어떨겠어요?? 네, 속상하겠죠? 지금 제 친구도 무척 속상하다네요. (물티슈를 꺼내며) 우리 다 같이 1번 배롱이가 햇빛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그런데 곰팡이만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겠죠? (호응) 네, 바로 원인이되는 주머니깍지벌레도 퇴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침 정승호가 숨겨놓고 간 방충제를 찾아냈어요. 이거 천연성분으로 되서 만원 넘는 거라던데, 같이 흥청망청 뿌려보실까요??

참고로 방충제는 해충에 직접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바람을 등지고 뿌리는 게 여러분 건강에 좋아요.
(같이 뿌려본 뒤)

(마시멜로 모형을 꺼내며) 자, 도와주신 보답으로 제 몸에 붙어있던 깍지벌레를 선물해드릴게요.
(거부반응 보이자)

음? 왜 그러세요? 풀잠자리가 깍지벌레 엄청 맛있다고 좋아하던데?! 성충도 맛있지만 유충이 아주 기가 막히는 산딸기 맛이랬어요! (호응)
물론 저는 안 먹지만요.

참,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여기 있는 제 친구들 전부 그을음병에 걸린 건 아니랍니다! (탐방객호응)

저기 2번 배롱이를 보면 주머니깍지벌레는 붙어있지만 그을음병엔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이렇듯, 같은 병균에 대해 다른 증상을 보이는 건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은 쉽게 풀이해보면, '병을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기로 사람도 면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심취해서 파내는 코딱지도 면역의 증거인 거 알고 계셨나요? 콧물이 세균을 붙잡아 몸으로 들어오지 않게 잡아준 거죠. 그밖에 귀지도, 눈곱도, 모두 '병을 피한' 증거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나무들 또한 '면역'이 있어요! 편백나무 같은 침엽수는 피톤치드라는 화학성분을 내뿜어 자신을 보호하구요, 작은 나무들은 털이나 왁스층으로 병균을 막곤 해요. 비상수단도 있는데 만약병균이 몸속에 침투할 경우엔 탕! 탕! 몸 속에 장벽을 만들어 더는 못 지나가게 막기도 해요. 물론 이방법은 혹이 생기기때문에 저도 손해죠. 보기엔 가만히 서있는 무력한 나무 같지만, 속으론 꽤 철두철미하답니다.

여러분, 요새 인간세상에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이들이 아프고 삭막하다면서요...?

저도 힘든때가 있었어요. 각지벌레들이 몸으로 스멀스멀 기어올라오고 검은곰팡이 포자가 날아들던 그때의 섬뜩함...!! 하지만 그럴수록 햇빛밥도 열심히 먹고 흙속에서 열심히 뿌리를 뺀 양분을 흡수했어요. 그결과 그을음병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에게도 면역력이 있잖아요!?! 편식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오늘 숲에 나온 것처럼 꾸준히 운동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1번 배롱이처럼 약한 친구에겐 방충제가 필요하듯, 면역으로 이겨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할 '치료제'도 나오겠죠? 듣기론 마지막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다면서요? 약도 곧 나오겠다, 아직 몸도 튼튼하겠다, 여러분은 반드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여름마다 피워내는 백일홍 꽃 보러 놀러와요.

	이상으로 자연환경 해설사 정승호의 의뢰를 받은 배롱나무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	---